

# 전국 신설법인 역대최다...광주·전남은 감소

광주·전남 7266개 신설 전년비 86곳 1.2%↓...전국 6.7% 증가 대조  
창업 인프라·지원책 수도권 집중...지역 창업시설·지원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전국 신설법인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남 법인은 오히려 감소했다.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책이 수도권에 몰린 탓에 지역 창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신설법인 수는 광주 3677개·전남 3589개 등 총 7266개로 집계됐다. 전국 신설법인 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0만8874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광주·전남은 1.2% 감소했다.

2017년 광주·전남 법인은 전년보다 900개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7000개를 넘어섰지만 이듬해 335개(4.8%) 늘어나며 증가세가 주춤했다. 급기야 지난해는 법인 수가 86개 줄어든 7266개로 나타났다.

광주 법인은 3803개(2017년)→3715개(2018년)→3677개(2019년)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764개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760개↑), 부산(614개↑), 인천(523개↑) 순으로 법인 창업을 증가했다. 법인 수가 줄어든 지역은 광주와 전남, 강원, 경북, 제주 뿐이었다.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은 60.3%(2017년)→60.8%(2018년)→61.6%(2019년) 해마다 오르는 추세다.

한편 전국 신설법인 수는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만9547개였으며 음식료품(17.1%↑), 기계·금속(3.7%↑) 부문이 증가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만3884개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부동산업(42.7%↑)과 숙박·음식점업(18.2%↑)에서 신설법인이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만든 신설법인이 3만7164개(34.1%)로 가장 많았고, 50

대(2만8560개·26.2%)와 30대(2만2929개·21.1%)가 뒤를 이었다.

특히 30세 미만의 신설법인은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증가부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만9225개로 전년 대비 12.8% 늘었고, 남성 신설법인은 7만9649개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 늘었다. 증가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기업 인프라가 몰려있다"며 "지역 창업 기반이 되는 시설과 정부 지원이 공평하게 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현 원장의

## 특 특 창업이야기



### 신종 코로나 매출 하락 대응전략

중국 후베이성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외출을 자제하고 이른 퇴근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눈에 띄고 줄어들었고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시점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시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의 사망자는 없고 확진자 수도 또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의 관리가 충분히 잘 되고 있지만 중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가시지 않아서 국내의 소비 위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매출하락으로 매장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이야 현재 시점에서 창업 때 적자로 출발해야 한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창업시점을 소비자들의 소비추이를 살펴가며 한 박자 늦추는 전략을 쓸 수 있지만 이미 창업을 해서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비록 당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수준의 매출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매출하락을 막고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을 추가로 견인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외식업종이 가장 눈에 띄게 직격탄을 맞았기에 외식업종 중심의 대응전략을 우선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매장과 직원의 청결관리를 통한 고객의 불안감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매장의 환기와 상시 청소와 소독을 하고 특히 고객들이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출입문과 화장실 손잡이 등은 수시로 소독을 해줘야 하며 이에 대한 안내표지를 해두면 고객들이 더 안심하게 된다. 또한 고객들은 고객과 고객 간의 전염에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불안감을 느낀다. 직원들을 수시로 손을 씻게 하고 얼굴을 가리는 일만 마스크는 고객들에게 불안감을 더욱 조성할 수도 있으니 입가리개용 투명 위생마스크를 끼게 해야 한다. 매장 평형에 맞는 공기정정기를 설치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배달메뉴의 강화와 배달과 테이크아웃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짤 수 있다. 고객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반대급부로 배달시장은 그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아직 배달시장이 뛰어들지 않은 업종들은 이번 기회에 배달시장에 적극 뛰어들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배달시장에 뛰어들어 업종들도 배달메뉴의 추가 확대를 통한 매출강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점심메뉴의 보완을 통한 점심 매출 극대화 전략이다. 비록 저녁식사는 집에서 할지라도 점심식사는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외식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에 점심매출을 강화해 타격을 크게 입은 저녁매출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단체고객이 현재저렴하게 즐기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4명 단위의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고려해 볼만 하다. 연인들을 위한 커플할인이나 친구들을 위한 우정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홍보마케팅 예산의 조정을 짤 수 있다. 현재 고정적으로 홍보마케팅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효과가 나지 어려운 매장 매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보다는 배달매출에 도움이 되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우선으로 홍보예산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 올해 7월부터 '벤처투자법' 시행

###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4조2777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 2017년 2조3803억원, 지난해 3조4249억원 등 해마다 규모가 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1호 제정법안으로, 독자 법안화해 벤처투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한다. 이 법률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하고,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들이

자금을 주는 '엔젤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최초로 법에 명시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힘을 실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자들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창업 초기기업에 발걸음 지원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가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2040 농업창업 지원...유휴 농지 개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일자리 증가 추세에 발맞춰 2040세대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유휴 농지를 개발해 농지 공급을 늘린다.

또한 혁신창업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정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과 농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따라 2040세대의 안정적 창업과 농촌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 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와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사내 벤처 출범으로 일자리 창출 나선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1기 사내벤처 출범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시큐리티 AI+' 팀을 출범시켰다. (인터넷진흥원 제공)

### 인터넷진흥원 1기 사내벤처 출범

나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기업이 잇따라 사내벤처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인터넷진흥원 1기 사내 벤처 '시큐리티 AI+' 팀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 팀은 정보보호 연구개발(R&D)·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및 투자유치·산업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경영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독립된 업무공간에서 창업교육·컨설팅·투자자 연결 등 지원을 받은 다음 최종 심사를 통해 분사창업 여부가 결정된

다. 분사 이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창업휴직 제도를 통해 3년 이내에 진흥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김석환 원장은 "사내벤처 출범을 통해 원내 혁신문화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KDN의 사내 벤처 'K-몬스터'가 지난해 개발한 증강현실(AR) 안전시스템은 겨울철 화재가 잦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전국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한전KDN의 '화재예방 관리기술시스템'은 부산 부전동 전통시장 등에 구현됐으며 점포가 밀집하게 붙어 있는 전통 시장의 복잡한 전기설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